



I 이달의 소식

1. 모임안내

1쪽

II 내용

- | | |
|--|----|
| 1. 노아의 홍수 (17) 노아홍수 시리즈를 시작하며 - 이재만 | 2쪽 |
| 2. Articles (7) 진화론: 고대의 이교도 개념 - 이종현 역 | 3쪽 |
| 3.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25) 스트레스 극복의 길 1 - 김경태 | 6쪽 |
| 4. 참 아름다워라! (42) 대홍수와 인구통계학적 증거 - 창조과학회 | 8쪽 |

인사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을 성경은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읽는 책에서부터 어른들이 읽는 책까지, 그리고 세상의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학문들은 “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외치며 선한 싸움을 하는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은 길 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나아가야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지기로써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도 또한 기대해 봅니다.

10월도 창조주이자 구원주이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연구위원 전 창진 올림 -

1. 모임 안내

창조과학회 대구지부에서는 정기 스터디모임(1, 3째주 목요일)이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과학 자료를 발굴하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보다 전문성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며, 상호교제를 통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모임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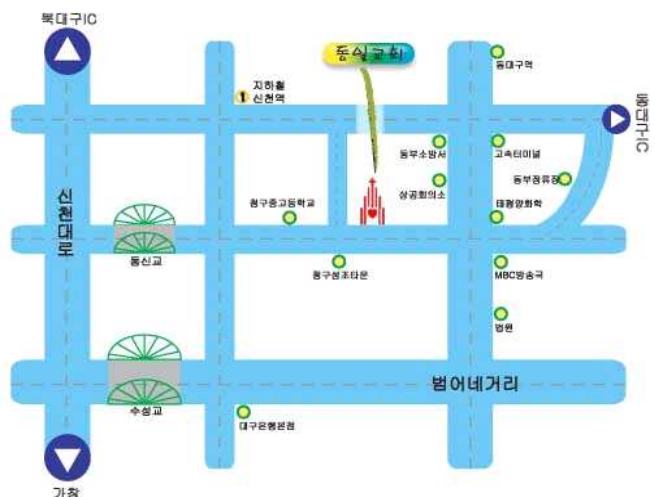
일시: 2008년 10월 16일(목)

장소: 동일교회 복음센터 306호

☎ (053) 743-6058

내용: The Book of Genesis

(by Chuck Missler)



노아홍수 시리즈를 시작하며

성경역사 곧 지구역사 가운데 지질학적으로 허리에 해당하는 사건을 꼽으라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홍수이다. 지질학적으로 허리라고 표현한 이유는 창세기 1장의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면서'(창 1:9) 창조되었던 땅이 노아홍수 기간에 '깊음의 샘들이 터지는'(7:11) 시작과 함께 '땅이 침몰되었던'(9:11) 창조 이래 가장 엄청난 지질학적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단지 지질학적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리므로'(7:11) 기상학적인 변화도 수반되었을 것이며, '땅 위에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으며'(7:22) 오직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던'(7:23) 생물학적으로도 지대한 변화를 초래했던 사건이었다. 여기에는 방주에 탔던 노아가족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진(9:16), 그리고 바로 바벨탑으로 이어진 인류학적으로도 중요한 기록이다. 그러므로 홍수의 중요성은 지질학적, 기상학적, 생물학적, 인류학적인 면 또한 그 밖의 분야를 통틀어 홍수전시대와 홍수후시대로 나눌 수 있으리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아홍수는 신약성경에서 그 사실을 뒷받침 받는다. 제자들이 세상 끝에 관한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노아홍수를 언급하신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 24:37, 눅 17:26)하시면서, 노아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며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예표(symbol)임을 분명히 하셨다. 히브리서에는 노아가족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11:7)고 구원의 기준이 믿음임을 언급한다. 베드로 후서에서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일부러 잊으려 했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받았으며(3:5-6), 물심판 후 남겨진 하늘과 땅은 앞으로 불심판을 받되 동일한 말씀이(3:7) 적용되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물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확신은 앞으로 올 불심판에 대한 이해와 확신에 전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노아홍수는 여러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창조이야기를 통하여 수십 회에 걸쳐 노아홍수의 성경적 내용과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하나씩 나누어 볼 예정이다. 홍수의 발단이 창세기 6장 5절부터 노아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농업을 시작하기 전인 9장 19절까지 가능한 한 두절씩 세밀하게 짚어볼 예정이다. 성경기록이 얼마나 세심하며, 직접 목격한 자가 아니면 도저히 기술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기회가 되리라 여겨진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반면에 구원 받은 자를 위하여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모습과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자체 하나로 얼마나 감격스러울 수 있는지 공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화론 - 고대의 이교도 개념 (Evolution: an ancient pagan idea)



대학에서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동안에, 기원에 관한 이교도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다. 그것을 공부하면서 나는 처음으로 진화론과 우주에 주어진 막대한 나이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 수년간 과학적 탐구를 한 이후에, 나는 마침내 자연주의와 성경적 기독교 믿음을 조화시키려 시도했던 자유주의적 이해로부터 탈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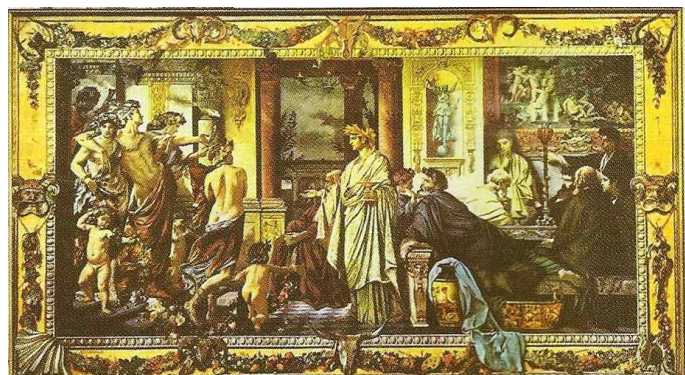
그리스 사람들(The Greeks)

BC 600 - BC 100 경에 살았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었을 때, 나는 다윈이나 현대적인 가정들이 있기 오래 전에 초기 형태의 진화론과 막대한 연대를 발견하고서 놀랐다. 아낙시만드로스/Anaximander(c. 610-546 BC)의 단편에서는 “인간은 원래 다른 종류의 동물, 즉 물고기를 닮았다”고 가르쳤다. 데모크리토스/Democritus(c. 460-370 BC)와 같이 “원시인이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unintelligible)’ 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점차적으로 날 말들을 똑똑히 발음’했다”고 가르친 사람도 있었다. 에피쿠로스/Epicurus(341-270 BC)는 우주가 원자의 우연한 운동으로 생겨났으므로, 하나님이나 신들이 필요 없다고 가르쳤다.

그들 이후에, 로마의 자연주의자인 원로원 의원 플리니/Pliny the Elder(AD 23-79)는 이렇게 말했다: “... 우리는 우연의 지배를 너무나 잘 받기 때문에 우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우연은 하나님이 불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우주의 엄청난 나이와 관련하여, 플라톤과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은 현재의 이 우주가 수백 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 관점을 가졌다. 락탄티우스/Lactantius는 AD 4세기에 이런 글을 썼다:

“플라톤과 다른 많은 철학자들은, 모든 사물들의 기원과, 세상이 만들어진 최초의 시기에 관해 무지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이 아름다운 배열이 완성된 이후로 수천 시대가 흘렀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 시대는 1,000년을 말한다.)



이집트인, 바빌로니아인, 힌두인(Egyptians, Babylonians and Hindus)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사상의 일부를 바빌로니아인과 이집트인과 힌두인으로부터 빌려왔는데, 그들의 철학은 수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예를 들면, 힌두 사상 중에 이런 것이 있다. 브라만(우주)은 씨앗처럼 저절로 자연적으로 진화한 다음, 약 43억 년 전에 팽창해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들 힌두인들은 재탄생과 멸망과 휴면의 주기를 가진 영원한 우주를 믿었는데, 이것은 ‘칼파스/kalpas’라고 하는 것으로, 진동 빅뱅이론과 다소 비슷하다. 또한 힌두의 **바가바드 기타/Bhagavad Gita**에 보면 크리쉬나/Krishna 신은 “나는 모든 생물이 진화한 원천이다”라고 말했다고 적혀있다.

일부 바빌로니아인들은 자기들이, 점토판 위에 천문학이 기록된 명각을 730,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베로수스/Berosus와 같은 사람들은 그 명각이 490,000년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집트인들은 그들이 100,000년 이상 전부터 천문학을 이해했다고 주장했다.

초대 기독교회의 교부들은 지구의 나이 혹은 문명의 나이에 대해 이교도들과 끊임없이 논쟁해 왔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6,000년보다 이전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했다. 예를 들면,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의 하나인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AD 354-430)는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하나님의 도시/City of God**에서, 한 장 전체를 ‘세상의 과거에 대해 수만 년을 지정한 역사의 허구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인류의 특징과 기원에 대해 말할 때 자신들이 말하는 바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추측을 빼버리자. ... 그들 역시 역사가 수만 년이 넘는다고 공언하는 고도로 거짓된 문서에 속고 있다. 하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아직 6000년도 지나지 않았다(They are deceived, too, by those highly mendacious documents which profess to give the history of many thousand years, though, reckoning by the sacred writings, we find that not 6000 years have yet passed).”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테오필루스/Theophilus(AD 115-181)는, 플라톤이 대홍수와 그의 시대 사이에 2억년의 기간이 있다고 했고, 이집트인 아폴로니우스/Apollonius는 창조 이후로 최소한 155,625년이 지났다고 주장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교도의 긴 시대 문제에 관하여 이교도 행정장관이었던 아우톨리코스/Autolycus에게 변증하는 글을 썼다.

고대의 이교도들은 점성학을 진짜 과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막대한 나이를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율리우스 아프리카누스/Julius Africanus(AD 200-245)는 이렇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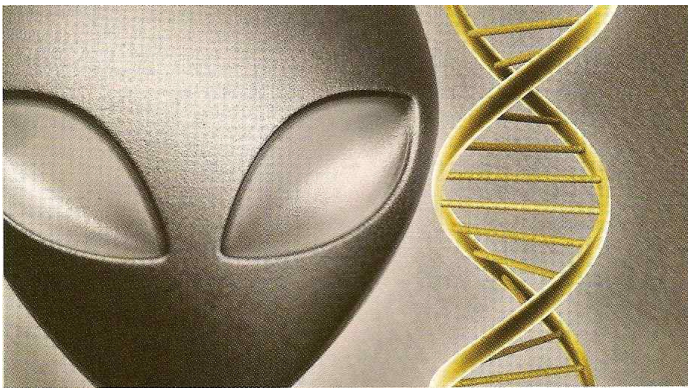
“실로 자기들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자부하는 이집트인들은 점성가들의 손에 의하여 순환(cycles) 및 수만 년과 같은 그런 종류의 설명을 생각해 냈다...”

현대의 이교도들?(Modern pagans?)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막대한 나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훨씬 더 복잡한 ‘연대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방사성연대측정법과 같은 것을 이용한다.

그러나 **Creation** 잡지에서 종종 보여주었듯이, 이 방법들은 시간의 측정치가 **아니라**, 방사성 붕괴 산물과 같은 것의 측정치에 대한 **해석**일 뿐이며, 그러한 해석은 잘못된 **가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보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확률적으로 0에 가까운 자발적인 진화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가정하고서, 어떻게 해서 생명체가 지구에 나타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 내고 있다. (왓슨/James Watson, 윌킨스/Maurice Wilkins와 함께) DNA 구조의 공동 발견자인 고 프란시스 크릭 /Francis Crick은, 지구상에 생명체를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외계인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교도의 신들이 맹렬하게 되치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Scientific American** 지에 막스 테그마/Max Tegma가 쓴 최신 기사에서와 같은 ‘다중 우주’ 혹은 ‘평행 우주’ 이론 등에 관하여 많은 추측이 이루어지고 있다. 공상과학 영화인 매트릭스/Matrix에서와 같이 요사이에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런 환상은 꽤 유용하다! 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고대의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AD

430년에 그것에 대해 불평하며 이렇게 말했다:

“또 다시,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이 세상은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수많은 세상이 있다고 하거나, 혹은 실제로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기는 한데 이 세상이 죽으면 일정 기간 후에 또 다시 태어나며, 이런 것이 수없이 반복된다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솔로몬은 약 3,000년 전에 이렇게 썼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전도서 1:9-11).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단지 약 150년 후에 테오피루스가 아우톨리코스에게 한 다음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내 말의 목적은 단순히 많은 말을 내뱉는데 있지 않고,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 몇 년이 지났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빛을 던져주고, 이들 저자의 헛수고와 실없는 말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세월이 지났다고 확신하면서 플라톤이 말했듯이, 대홍수 이후로 지금까지 2만 곱하기 만년이 지나지도 않았고,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이집트인 아폴로니우스가 제시한 것처럼 10,375년의 15배가 지나지도 않았습시다. 또한 피타고라스와 나머지 사람들이 꿈꾸듯이, 세상은 창조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물들이 저절로 생겨나지도 않았습시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것은 창조되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시대의 전체 과정이 분명하게 계산됩니다.”

“세상의 창조로부터 대홍수까지는 2242년이고 ... 세상의 창조로부터 모든 헛수를 합치면 5698년이 되며, 우수리로 몇 달과 며칠이 있습니다.” **창조**



스트레스 극복의 길 1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성이 점점 상실되어 가고 우리는 기계의 한 부품처럼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단조로우면서도 경쟁적으로 살다 보니 정신적인 압박과 긴장이 심해지는 것 같다. 스트레스(stress)는 외부적으로도 오고 또한 내부적으로도 발생한다.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시끄럽거나 폐쇄된 환경, 대인관계에서 오는 갈등, 개인적인 자유보다는 조직의 획일적 규율에 적응해야 하는 일, 과중한 업무와 동료들과의 승진 경쟁,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의 죽음 등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그리고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수면 부족이나 불규칙한 생활리듬, 과도한 자기비판이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독선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완벽주의를 추구하여 일중독 현상에 빠지는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Stress is a biological term which refers to the consequences of the failure to of a human or animal body to respond appropriately to emotional or physical threats to the organism, whether actual or imagined.

스트레스라는 말은 원래 물리학에서 고형물체가 외부의 힘에 의해 성질이 변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의학적인 용어로서는 1940년대 캐나다 의사인 켈리에(Hans Selye)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물리적, 심리적, 정신적 압력에 대해 우리 몸 내부의 저항력이 못 미쳐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가 가지는 보호 능력이 손상되어 신체 및 정신적인 병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1차적으로 경고반응을 일으키며 스트레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을 한다. 뇌에서 스트레스를 인식하면 교감신경이 작동하여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뇌의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에 신호를 보내어 뇌하수체로 하여금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한다.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cortisol)을 분비하여 온 몸으로 보내어 스트레스에 대항하도록 한다. 처음에는 체온 및 혈압이 저하되거나, 저혈당, 혈액농축 등의 쇼크가 나타나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한 반응, 즉 혈압상승, 체온상승, 고혈당 등이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호르몬의 작용으로 나타난다. 경고반응 후에도 스트레스가 지속 되면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호르몬을 생산 분비하여 이 스트레스에 저항을 한다.

그러다가 이 저항력이 점점 떨어져 소진하게 되면 각종 병적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피로를 쉽게 느끼고 두통이나 불면증을 겪고 목이나 어깨, 허리 등에 경직이 오는 근육통을 느낀다.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가슴이나 배에 통증을 느끼고, 심해지면 구토, 전율, 안면홍조 등이 일어나고,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자주 감기에 걸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면 이들 호르몬이 뇌로 가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뇌신경 세포가 죽고 신경망이 느슨해짐으로 인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고 불안해지거나 신경이 예민해 지기도 하고 근심과 걱정이 늘고 심해지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래서 안절부절하게 되고 음식 섭취나 수면도 조절이 되지 않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살을 기도하는 지경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들에게 노출 되어 있고 이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피해갈 수도 없다. 스트레스가 올 때 이를 지혜롭게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짐을 맡겨달라고 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걱정되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부터 해야 할 것 같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은 은행이 우리 돈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가 근심거리를 주님께 맡길 수 있으려면 먼저 주님께서 나의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능력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선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고, 우리는 스스로 잘 알듯이 능력에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일수록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 것이고 그럴 때마다 더욱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자녀 된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본다. 나는 내 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근심과 걱정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신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트레스에 짓 눌려 힘들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한 식구가 되었다. 주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우리들은 즐겁게 살도록 서로 노력해야 한다. 함께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며 함께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 서로 인정해주고 이해해 줌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고 원만한 인격으로 다른 사람과 건전한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서로 함께 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를 받쳐주고 지지해 주는 삶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오늘도 나로 하여금 복잡하게 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들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의식적으로 힘쓰도록 다짐해 본다.

출처 :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중에서 **창조**

참세기 대홍수와 신구통계학적 증거

2008년 현재 세계인구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각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해 집계된 수치에 따르면 65억을 넘어 70억에 다가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세계 인구가 89억이 된다고 하니 정말로 어마 어마한 수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1만 년 미만의 인간역사로는 현재의 70억에 달하는 인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믿는답니다.

그럼, 전자계산기로 (혹은 암산으로?^^;;) $\times 2$ 게임을 해 볼까요? 먼저 1×2 를 하시고, 다시 $\times 2$ 를 해 보세요. 그 숫자에 다시 $\times 2$ 를 해 보세요. 아직까진 암산으로도 계산이 쉽죠? 그런데 계속해서 $\times 2$ 를 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2048, 4096, 8192, ..., 524288, ..., 33554432, 268435456, ..., 2147483648, ..., 34359738368, ..., 549755813888, ..., 17592186044416, ..., 562949953421312, ..., 18014398509481984, ..., 576460752303423488, 처음에는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갈수록 숫자가 엄청 커져서 계산기 화면에 숫자가 다 나타나지도 않지요?^^

이것은 단순한 산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인구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세계 인구성장률 (growth rate)은 1.7% 정도인데, 이것은 1000명 당 매년 17명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지요??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현재 지구상에는 70억에 달하는 인구가 살고 있으므로 매년 1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한답니다.

만약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인류가 수십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한다면 인구성장률 1.7%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게 되는 지 아시나요? 자그마치 ‘0’이 43개나 붙은 숫자(1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10⁴³)에 해당하는 인구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있어야 된답니다. 하지만 지금 지구상에는 인구가 얼마라고 했지요? 네, ‘0’이 9개 붙은 70억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요?

비록 60억의 인구를 제주도에도 다 세워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구상에는 그와 같은 인구를 먹여 살릴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인구가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즉, 진화론을 사실이라고 여길 때 절대 불가능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대홍수 이후 노아의 8식구로 시작된 세계 인구는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 연간 인구증가율이 현재 세계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작은 0.5%만 되어도 현재 인구에 도달하는 데에 4500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BC2350년 경 발생 추정. 4350년 후 세계인구 60억, 이는 연간 0.47%의 인구증가율로 전쟁, 질병, 기근 등을 고려한 인구증가율이다. 만약 1.7%라는 인구성장률을 적용하면 현재 지구상에는 $6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0=6 \times 10^{31}$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 (Jasmine Ireland, Creation, Vol. 27 No. 3, pp.42-43 참고)

인구증가율은 여러 기록에서 보고 되고 있는데, 세계 인구는 1650년 이후 0.26~2.5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대의 인구증가율을 살펴볼 수 있는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애굽(이집트)으로 70명이 내려갔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는 시점(BC 1450년경, 출12:37절--성인 남자들만 약 60만 명)에서의 인구는 약 2백만 명으로 늘어났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 증가는 연간 2.25~2.41%로 계산되는데, 오늘날의 인구증가율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수치인 것입니다.

만약에 1백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하여 오늘날의 70억이 되었다면 이때의 연간 인구 증가는 단지 0.00217%가 되며, 인구가 2배로 되는 기간이 무려 32,000년이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구통계학적으로 수백만 년 전에 인류가 출현했다는 것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준, 창세기의 과학적 이해, pp.69-72 참고)

바로,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견지에서 볼 때에도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홍수의 성경적 연대가 진화론이 주장하는 연대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퀴즈>

노아의 8식구에서 시작된 세계 인구는 0.5% 인구 성장률을 따를 때 대략 몇 년 후면 약 70억 인구에 도달하게 되나요?? **참조**

본 전자소식지를 계속해서 받아 보기 원하시면, 저희 창조과학회 대구지부 홈페이지(creation21.or.kr)를 방문하셔서 **회원가입(무료)**하시고, 가입하실 때 반드시 **E-mail 주소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요청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이메일 주소(ssoya89@hanmail.net)로 요청사항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달마다 더욱 좋아지는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